통도사, 1381주년 개산대재

10월 19일, 법요식 봉행
영고재 · 영축삼보 이운으로
자장 율사 창건 정신 기려
한 달간 '영축문화축제' 성료

이도경 부산지사장


통도사는 창건 1381주년을 맞아 10월 19일 개산대재 법요식을 봉행했다.

영축총림 통도사가 창건 1381주년을 맞아 개산조 자장 율사의 창건 정신과 역대 조사들의 수행 전통을 기리는 개산대재를 봉행했다.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는 10월 19일 괘불대 앞에서 개산대재 법요식을 봉행했다. 법요식에는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와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을 비롯한 사중 스님들과 박완수 경남도지사, 나동연 양산시장, 윤영석·김태호 국회의원, 박일배 양산시의회 의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법요식에 앞서 개산조당에서는 영고재가 봉행됐다. 영고재는 통도사를 창건한 자장 율사의 원력과 가르침을 되새기고 역대 조사들의 수행과 공덕을 기리는 의식이다.

영축삼보 이운 행렬은 총림문에서 괘불대까지 이어졌다. 사부대중은 이운 행렬과 함께 통도사의 창건 정신과 수행 전통을 되새기며 부처님의 가르침과 자장 율사의 원력이 이어지기를 발원했다.

법요식에서 주지 현덕 스님은 "자장 율사께서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금강계단을 세우셨다"며 "부처님을 가까이 모시고 계율을 삶의 근본으로 삼은 그 뜻은 오늘까지 통도사 대중의 수행을 이끄는 가르침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1381년의 역사에는 큰스님들의 치열한 정진과 이름을 남기지 않은 이들의 공양과 울력이 함께 깃들어 있다"며 "어려운 때에도 도량을 지킨 신심과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은 보살행이 쌓여 오늘의 통도사가 있다"고 말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축사에서 "통도사가 자장 율사의 창건 이래 천년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의 정신적 안식처이자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이어져 왔다"며 "통도사의 전통문화가 온전히 보존되고 그 가치가 미래세대까지 계승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통도사가 지닌 소중한 역사와 전통문화가 후대에도 온전히 계승될 수 있도록 양산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통도사 승가대학 학인 스님들을 위한 영축장학금 전달식과 공로패 수여식도 진행됐다. 서예전과 사생실기대회 수상자에 대한 시상도 이어져 통도사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한 작품 활동에 참여한 이들을 격려했다.

통도사는 올해 개산 1381주년을 맞아 '천년의 꽃을 피우다'를 주제로 영축문화축제를 진행했다. 국화 장엄과 미디어아트 문화공연,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찰의 역사와 불교문화를 알렸으며, 10월 19일 개산대재 법요식을 끝으로 창건의 뜻을 기리는 주요 의례를 회향했다.

부산 '팔관회' 호국불교 정신 잇다

10월 17~19일, 범어사 일원서
어린이 수계 · 호국기원법회 등



신라시대부터 이어져 온 팔관회가 호국불교의 정신과 평화의 염원을 담아 재현됐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정오 스님·범어사 주지)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금정총림 범어사 일원에서 '2026 팔관회'를 봉행했다. 팔관회는 국가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불교 전통의례로, 부산불교연합회는 매년 의례와 문화행사를 통해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17일에는 선재동자 팔관재계수계법회와 영유아 마정수기법회가 봉행됐다. 선재동자문화전승단 어린이들은 계를 받으며 불자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어 전계사 정오 스님 등 삼화상 스님들은 아이들의 이마에 관정수를 찍는 의식을 통해 건강과 지혜로운 성장을 축원했다.

18일 범어사 특설무대에서는 호국기원법회와 백희가무 공연이 열렸다. 전재수 부산시장 등 지역 인사와 사부대중이 동참한 이날 법회에서 참석 대중은 고불문과 호국기원기도를 통해 국태민안과 국민의 평화를 발원했다.

이어진 백희가무 공연에서는 임진왜란 당시 승병을 이끌었던 서산 대사와 사명 대사 등 호국 승려들의 활약을 전통 가무와 음악으로 재현했다

19일 선문화관에서는 호국영령위령재가 엄수됐다. 불교계 지도자와 보훈가족, 군·경 관계자 등이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회장 정오 스님은 대재사에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며 "그 숭고한 뜻은 세월이 흘러도 결코 잊혀서는 안 될 우리 모두의 역사이자 미래세대에 길이 전해야 할 소중한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위령재 후 봉행된 팔관재계수계법회에서 수계자들은 고려시대 복식을 갖추고 팔관재계를 받으며 계율을 지키고 청정한 삶을 살아갈 것을 서원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임진의총 순절용사 추모 위령재

동래구불교聯, 10월 16일
금강공원 임진의총서 봉행


금강공원으로 합동 이전했다.

동래구불교연합회(회장 자관 스님)는 10월 16일 부산 금강공원 임진의총에서 '동래 임진의총 순절용사 추모위령재'를 봉행하고 임진왜란 당시 나라와 백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절용사들의 넋을 기렸다.

이날 행사에는 동래구불교연합회장 자관 스님과 부회장 정현 스님, 법관 스님을 비롯한 회원 스님들, 장준용 동래구청장과 최수용 동래구의회 의장 등 사부대중이 함께했다.

자관 스님은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오늘의 우리를 돌아보는 일이며, 선열의 희생을 기리는 것은 내일의 평화를 지켜 나가겠다는 다짐"이라고 말했다.

동래임진의총은 임진왜란 당시 왜군의 침략을 막아 동래성을 지키다 순절한 순국선열의 유골을 모신 무덤이다. 1731년 동래읍성 남문터에서 많은 유해가 발견돼 당시 동래부사 정언섭이 유해 6구를 거둬 삼성태 서쪽구릉지에 안장하고 '임진전망유해지총' 비를 세웠다. 그 후 1974년 복천동에서 금강공원으로 합동 이전했다.

동래구불교연합회는 2000년부터 매년 음력 4월15일 재를 올렸으며, 2010년부터는 동래읍성역사축제 개막일에 맞춰 추모재를 봉행하고 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대원각사, 비로자나불 대불 점안

10월 17일, 복장 · 개금 점안법회
정여 스님 "자성의 광명 깨워야"



부산 대원각사(주지 도천 스님)는 10월 17일 법신 비로자나불 대불 복장·개금 점안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금정총림 방장 정여 대종사를 비롯해 대원각사 회주 안도 스님과 사부대중이 동참해 비로자나불의 원만한 점안을 축원했다.

법회는 각현 스님의 법고시연과 성현 스님의 타종 5타로 시작됐다. 이어 개회사, 삼귀의례, 반야심경 봉독에 이어 비로자나불 점안의식, 법어, 회주 안도 스님의 인사말과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정여 스님은 점안법어에서 "오늘 대불의 복장에 정성을 모으고 황금빛 법신으로 새롭게 나투시며 눈을 밝히는 것은 우리 각자의 가슴속에 깃든 자성의 광명을 깨우는 불사"라며 "비로자나불의 자비광명은 차별이 없이 두루 비추어 만물을 살린다"고 강조했다.

대원각사 회주 안도 스님은 "불상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라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상징한다"며 "이번 불사가 원만하게 성취될 수 있었던 것은 도량을 아끼고 정진을 이어온 사부대중의 지극한 신심과 원력이 모인 결과"라고 말했다. 아울러 불사에 담긴 신심과 원력을 이어 사찰을 찾는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정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환경보살이 되겠습니다"

미소원 제3회 환경참회기도
250명 동참…"일상 실천"



사단법인 미소원(이사장 장유정)이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환경오염에 대한 참회와 생명존중의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미소원은 10월 20일 미소원 법당에서 제3회 환경참회 및 수자영가기도를 회향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안도 스님과 부산 녹색사찰 1호 도림사 정찬 스님을 비롯한 기도 동참 불자들이 함께했다. 불교환경연대와 지역 사찰 및 단체에서도 뜻을 함께해 지난해보다 참여자가 늘었으며, 전체 동참 인원은 250여 명이다.

참석자들은 '생명을 존중하고 지구를 살리는 발원문'을 함께 낭독하며, 마음을 밝히고 국토를 청정하게 가꾸는 환경보살의 실천을 다짐했다.

안도 스님은 "환경참회기도를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말고 사찰에서도 매일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내가 버리는 작은 쓰레기 하나쯤은 괜찮다는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유정 미소원 이사장은 "미소원은 작은 단체지만 환경실천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자 한다"며 "각자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고, 이러한 실천이 다른 사찰과 단체로도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동참 스님들과 불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사명 대사 가사 재현 '첫선'


밀양 표충사는 10월 20일 제566회 사명 대사 추계향사를 봉행하고 사명 대사 가사 복제품을 처음 공개했다.

10월 20일, 표충사 추계향사서
진각 스님 "호국 정신 계승"

밀양 표충사(주지 진각 스님)가 임진왜란 당시 나라와 백성을 지킨 서산·사명·기허대사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추계향사를 봉행하고, 사명 대사의 가사 복제품을 처음 공개했다.

표충사는 10월 20일 경내 사당에서 '제566회 사명 대사 추계향사'를 봉행했다.

조계종 원로의원 원산 대종사는 추모사에서 "사명 대사의 충의정신과 구국정신은 시대를 초월해 후손들에게 영원한 귀감이 될 것"이라며 "대사의 유훈을 계승해 남북의 평화와 세계 화합이 이뤄지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표충사가 1년여에 걸쳐 추진해 온 사명 대사 가사 복제 불사의 성과물이 처음 공개돼 의미를 더했다.

주지 진각 스님은 "표충사에 보존된 사명 대사의 가사와 장삼은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훼손이 심해 원형을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라며 "소중한 문화유산이 사라지기 전에 후대에 온전히 전승하고자 복제 불사를 발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통 가사 제작에 정통한 명천 스님과 함께 원단의 재질과 색상, 문양, 제작 방식 등을 철저하게 고증해 약 1년 만에 가사를 완성했다"며 "장삼은 제작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내년 봄 향사 때 선보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복제한 가사는 25조 가사의 전통적인 구성을 바탕으로 모란꽃과 매화꽃 등 다양한 전통 문양을 재현했으며, 원단의 직조부터 천연염색, 바느질, 가사 고리 제작에 이르기까지 관련 유물과 자료를 고증해 원형에 가깝게 제작했다.

공개된 가사는 참석자들이 가까이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됐다. 홍제중학교 학생들은 명천 스님의 설명을 들으며 25조 가사의 구조와 전통 문양, 제작 과정 등을 살펴보고 불교문화유산의 가치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한국불교조계종 5대 종정 추대

10월 15일, 삼봉사서 추대법회
운붕 대종사 "자비 실천" 당부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총무원장 녹원 스님)이 제5대 종정에 송운당 운붕 대종사(포항 대성사 회주)를 추대하고 종단의 화합과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한국불교조계종은 10월 15일 총본산인 밀양 삼봉사에서 '제5대 종정 추대법회'를 봉행했다. 총무원장 녹원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오늘 추대법회를 형식적인 의식이 아닌, 종단의 종풍을 쇄신하고 승가 본연의 자세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운붕 스님은 포항 대성사를 중심으로 불법홍포에 힘써왔으며, 불교문화와 대중예술을 접목한 문화포교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2018년 사단법인 사명당기념사업회 제5대 회장으로 취임하는 등 불교문화 계승과 선양에도 관심을 기울여왔다.

운붕 스님은 "스스로가 온 우주의 주인임을 깨닫고, 날마다 일상에서 다툼과 차별을 넘어 대자대비의 향기를 피워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불교조계종은 "종정 추대법회를 계기로 청정한 수행 가풍을 계승하고, 사부대중의 화합을 바탕으로 불법홍포와 종단 발전의 새로운 원력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15년 역사 이어 전법 매진"

응공조계종 창종 15주년
10월 18일, 총본산 동명사서



사단법인 대한불교응공조계종이 창종 15주년을 맞아 종단 발전을 기원하고 청정 수행과 전법도생의 원력을 계승할 것을 다짐했다.

응공조계종은 10월 18일 총본산 칠곡 동명사 대웅전에서 '창종 15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문도회장 해진 스님은 봉행사에서 "종정 법운 대종사께서는 청정 수행과 전법도생의 대승보살행을 실천하며 불교 발전과 중생 교화에 헌신해 오셨다"며 "그 숭고한 원력과 가르침을 계승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로회의장 혜광 스님은 축사에서 "창종 15주년을 맞아 종단의 화합과 발전을 기원한다"며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중생의 고통과 번뇌를 소멸하는 등불이 되고, 응공조계종이 정법을 널리 전하며 사회에 희망을 주는 종단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종정 법운 스님은 법어에서 "수행자는 어떠한 대상에도 집착하거나 상을 내지 말아야 한다"며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버리며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다스려야 한다"고 설했다. 이어 종단의 내실을 다지고 승려들의 수행과 교학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연수교육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종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 깊이 배우고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